

釜山史 研究現況

洪 淵 津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目 次

- I. 머리말
- II. 時期別 研究現況
 - 1. 1960~1969의 研究現況
 - 2. 1970~1979의 研究現況
 - 3. 1980~1992의 研究現況
- III. 研究의 흐름
- IV. 맺음말

I. 머리말

광복 이후 계속된 政治的, 社會的 갈등과 굴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한 研究成果를 쌓아온 韓國史研究은 1980年代 접어들면서 그 研究의 對象으로 地方史가 부각되면서, 그 研究의 한 分野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물론 이전 시기에도 각 지방에 연고를 둔 鄉土史家들에 의한 향토사 연구가 이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향토사가들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고립·분산적인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향토에 대한 지나친 애착심과 단순한 호기심 또는 好事家의 입장 등에서 향토사 연구가 진행되어, 資料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비판이 결여되어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향토사가들과는 달리 1950년대부터 國內의 지방대학에 史學科가 설립되어 연구 인구가 증대하면서, 1960년대부터는 地方史學會가 결성되었고, 1960年代 후반에는 고립·분산적으로 진행되던 향토사가에 의한 연구도 차츰 지역 단위의 단체를 결성하여 갔다.” 이 시기 부산에서는 釜山鄉土文化研究會가 발족하여 《鄉土文化》라는 연구지를 발간하였으나 제3집을 내고는 활동이 중단되고 말았다. 한편 1970年代 初 성립되어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釜山史學會’는 전문연구자들의 학술논문 발표지의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부산사학회가 중심이 된 부산사연구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의 학회 활동과는 달리 1960년대부터 鄉土 내지 地方史研究를 목적으로 지방대학에 부설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 부산에서는 부산대에

1) 李樹健, 〈한국에 있어서 地方史 연구의 회고와 현황〉 《大丘史學》 20·21, 1982, pp. 99~100.

韓日文化研究所가 설립되어 前近代 古文獻의 국역과 부산·경남지역의 지방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1960年代 말엽에 그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 후 1970年代 부산사 연구는 연구소나 학회보다 일부 향토사가나 전문학자들에 의해 고립·분산적으로 진행되다가 1980年代에 들어와 종래의 향토사연구 분위기를 쇄신하고 좀더 과학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전문학자들에 의한 부산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2년에는 경성대에 ‘郷土文化研究所’가 설립되어 부산·경남지역의 지방사 관련 자료를 발굴·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1987년에는 부산대에 ‘韓國文化研究所’가 설립되어 부산·경남지역의 자료발굴·보급과 종합적인 학술조사연구가 이루어져 부산사연구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게 되었다.²⁾

특히 최근에는 부산사연구에 대한 전문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부산·경남 역사연구소(가칭) 설립을 위한 활동이 가시화하면서 부산사연구의 미래를 밝게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같이 부산사연구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광복 이후 1992년까지의 부산사 연구현황과 흐름을 살펴, 이러한 연구분위기에 기초작업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한다.

II. 時期別 研究現況

1. 1960~1969年の 研究現況

光復과 더불어 한국사연구도 일제강점기의 암울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2) 홍연진, <부산의 지방사 연구현황> 《항도부산》 8. 1991.

도약을 위한 자기반성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政治的·社會的 諸問題 즉,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포함한 자주적 통일민족국가의 건설과, 사회경제적 모순을 척결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개혁의 과제가 산재한 가운데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밀어닥친 미소의 한국 주둔은 급기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상을 더욱 심화시켜 한국사 더욱이 지방사에 대한 연구나 자료 정리는 엄두를 낼 수 없었고 이어진 한국전쟁은 국토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사회 혼란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시기 부산은 귀환동포의 귀국과 전쟁 피난민이 어우러져 극도의 생활고와 사회문제에 시달려 부산사연구에 대한 분위기는 형성될 수조차 없었고 이는 다음의 연구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시기의 부산사연구는 사실상 1960年代부터 이루어졌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³⁾

〈1960年代의 研究現況〉

1. 총 류

〈논 문〉

- (1) 朴敬源, 1966 〈경남의 文化財〉 《文化財》 2

〈단행본〉

- (1) 金昌峽, 1959 《釜山人物白人集》
 (2) 朴元杓, 1965 《釜山の 古今》

3) 부산사 연구현황 조사에 기본적으로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회보》 31~80 1980~1993
 ② 역사학회, 《현대한국역사학논저목록》 1983.
 ③ 張德振 編, 《한국사논저총목록》(제2판) I, II, III, 1992.

- (3)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5 《釜山略史》
- (4) 박원표, 1966 《開港九十年》
- (5) 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1966 《경남의 倭城址》
- (6) 金昌俠, 1967 《釜山の 主役》
- (7) 金義煥, 1969 《釜山の 古蹟과 遺物》

2. 先史時代

〈논 문〉

- (1) 金元龍, 1966 〈先史時代 東萊出土短頸埴〉《亞細亞研究》8-2
- (2) 朴商憲, 1966 〈釜山市 甘川洞 支石墓〉《考古美術》7-1
- (3) 金東鎬, 1966 〈釜山地方의 貝塚〉《古文化》4

3. 古 代

〈논 문〉

- (1) 丁仲煥, 1960 〈歷史的 變遷—原始 및 三韓時代의 경남—〉
《경상남도지》(上)

4. 朝鮮後期

〈논 문〉

- (1) 李鉉淙, 1959 〈李朝 倭館 略考〉《成均》7
- (2) 黃壽永, 1961 〈東萊出土의 李朝小鍾〉《考古美術》2-3
- (3) 金容旭, 1962 〈釜山倭館考〉《韓日文化》2-3
- (4) 李完永, 1963 〈東萊府 및 倭館의 行政小考〉《港都釜山》2
- (5) 丁仲煥, 1963 〈日本記錄에서 본 壬辰亂—부산관계 史料를 중심으로—〉《港都釜山》3
- (6) 金龍基, 1964 〈李朝 成宗代의 倭物庫에 대하여〉《부산대학교 논문집》5

5. 近 代

〈논 문〉

- (1) 金容旭, 1962 〈釜山 租界考—특히 일본조계의 성격 및 토지 소유관계를 中心으로—〉《韓日文化》1

- (2) 金義煥, 1963 <부산의 基督教(新教) 布教現況> 《港都釜山》
2
- (3) 金容旭, 1963 <부산의 築港誌> 《港都釜山》 2
- (4)~(6) 金義煥, 1963, 1964, 1966 <부산개항의 研究> 《港都釜山》
3, 4, 5
- (7) 朴仁錫, 1963 <부산 貿易考> 《港都釜山》 2
- (8) 朴九秉, 1967 <開港 以後 부산의 水産業> 《港都釜山》 6
- (9) 金大商, 1967 <開港 以後 부산의 社會變化> 《港都釜山》 6
- (10) 金義煥, <開港 以後 부산의 新教育의 展開相> 《港都釜山》 6
- (11)~(12) _____, 1967 <釜山 近代 工業 發達史> 上·下
《港都釜山》 6, 7
- (13) 李明燮, 1967 <開港 以後의 의료사> 《港都釜山》 6

<단행본>

- (1) 金義煥, 1967 《釜山近代教育史》
- (2) 부산학생사건정사편찬위원회, 1967 《釜山學生事件史》
- (3) 부산부두노동약사편찬위원회, 1969 《釜山埠頭勞動運動略史》
- (4) 朴元杓, 1969 《釜山金融史》
- (5) 金義煥, 1969 《釜山近代工業發達史研究》

이상에서 열거한 이 시기의 연구들을 시대별·주제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960년대의 연구현황 분석⁴⁾

주제별 시대별	1	2	3	4	5	6	7	8	9	計
總 類	(3)					1 (1)	(1)		(2)	1 (7)
先 史	1						2			3
古 代	1									1
高 麗										
朝 鮮 前 期										
朝 鮮 後 期		5					1			6
近 代	3	1	1 (2)	5 (2)	2 (1)	1				13 (5)
計	5 (3)	6	1 (2)	5 (2)	2 (1)	2 (1)	3 (1)		(2)	24 (12)

※ ()안은 단행본 숫자임.

4) 부산사 연구현황의 주제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총류, 통사류 관계
- ② 정치, 제도, 군사, 법률 관계
- ③ 사회, 신분, 가족 관계
- ④ 경제, 산업, 토지 관계
- ⑤ 사상, 종교, 학문, 사학사, 교육 관계
- ⑥ 문화, 문화재, 예술, 과학사, 서지, 민속 관계
- ⑦ 미술사, 고고학 관계
- ⑧ 역사지리, 지도 관계
- ⑨ 인물, 기타

또 부산사연구 현황 조사에서 부산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한 것만 다루었고, 특히 가야사 관련 분야는 최근에 부산시로 편입된 지역이 주를 이루고, 그 연구 성과물도 방대하여 생략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창원문화재연구소, 《가야 연구 논지 목록》 1991을 참고하기 바람.

위에서 살펴듯이 부산사연구는 광복이후 1960년 이전까지는 이렇다할 연구가 없었다(논문 1/24, 단행본 1/12).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한국사회 전반의 혼란과 갈등이 그대로 부산에도 일어났고, 특히 부산의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더 치명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조하지만 약간의 연구성과가 보이고, 이는 특정분야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 그 연구경향은 총류(논문 1/24, 단행본 7/24)의 연구에 단행본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데 이는 부산사에 대한 깊이 있는 개별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당시의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그 연구자도 일부의 향토사가와 전문연구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시대별 연구를 보면 近代史에 관한 논문이 13편으로 당시 연구의 거의 50%(논문 13/24, 단행본 5/12)를 차지하여 일제강점기 부산사를 究明하는 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외의 부산사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조선후기분야 연구에서 부산에 설치되었던 왜관(논문 4/6)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은 부산의 역사 진행에 있어서 對日關係의 위치를 짐작케 한다.

2. 1970~1979年の 研究現況

1970年代 한국사연구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1960年代의 경제개발정책과 더불어 역사학계의 연구분위기 가운데는 민족지상주의적 민족주체사관을 주장하며 당시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의

5) 부산과 일본 관계에 대한 별도의 연구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여기서는 생략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일관계사연구회 편, 《한일관계사논저목록》, 1992, 현음사 참조 바람.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입장과, 문화적 발전과정의 다양성을 기본입장으로 물계급적 연구 분위기를 띤 부류 및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듯 정체적인 한국사 인식을 극복하고자 사회경제사학의 외형을 추구한 부류 등이 한국사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분위기는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유신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주창되고,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변종으로 등장한 재야국수주의적 역사학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연구는 역사학의 실천적 인식을 주장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아카데미즘화 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부산사연구는 이전의 향토사가에 의한 연구는 쇠퇴하고 전문학자들에 의한 연구와 고고학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지게 성장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0年代의 研究現況〉

1. 총 류

〈논 문〉

- (1) 姜仁仲, 1970 〈부산지방의 봉수대 연혁 및 위치고〉 《향토문화》 3
- (2) 金義煥, 1970 〈釜山市 形成의 歷史的 背景과 性格〉 《향토문화》 3
- (3) 高斗東, 1970 〈釜山の 山名 解考〉 《향토문화》 3
- (4) 金義煥, 1976 〈原始時代에서 高麗時代까지-釜山史-〉 《개항백년》

〈단행본〉

- (1) 朴元杓, 1970 《부산변천기》
- (2) 金義煥, 1970 《부산지방의 地名의 由來》
- (3)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74 《釜山市誌》(上)

- (4) 부산시, 1974 《釜山の 古蹟과 地名》
- (5) 부산일보사, 1976 《개항백년》
- (6) 부산시, 1978 《부산의 역사》

2. 先史時代

〈논 문〉

- (1) 金龍基, 1971 〈多大浦 貝塚 發掘報告書〉 《釜大史學》 2
- (2) 金東鎬, 1972 〈釜山 漆山洞 제1호 고분 發掘報告〉 《文化財》 6
- (3) 金廷鶴, 1974 〈先史時代의 釜山〉 《釜山市誌》 (上)
- (4) 鄭澄元, 1977 〈釜山 槐亭洞 甕棺墓〉 《考古學》 4
- (5) 박선주, 1977 〈부산 아치섬(朝島) 인골에 대하여〉 《白山學報》 22

〈단행본〉

- (1) 동아대 박물관, 1971 《동래 복천동 제1호 고분 발굴보고》
- (2) 국립중앙박물관, 1973 《朝島貝塚》
- (3) 부산대 박물관, 1973 《오륜대 고분군 발굴보고》
- (4) 부산시, 1979 《金井山城 傳墩臺 發掘調査報告》
- (5) 동아대 박물관, 1979 《동래읍성 서장대 망월산정 건물지 발굴보고서》
- (6) 부산대 박물관, 1979 《부산 화명동 발굴보고서》

3. 古 代

〈논 문〉

- (1) 丁仲煥, 1974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부산〉 《부산시지》 (상)
- (2) 金廷鶴, 1979 〈부산과 가야문화〉 《부산시립 박물관 연보》 1, 2 (이하 《연보》로 약함)

4. 高麗

〈논 문〉

- (1) 黃雲龍, 1974 〈고려시대의 부산〉 《부산시지》 (상)

5. 朝鮮前期

〈논 문〉

- (1) 金錫禧, 〈조선전기의 부산〉 《부산시지》 (상)

6. 朝鮮後期

〈논 문〉

- (1) 崔永植, 1970 〈釜山 倭館의 職官考〉 《향토문화》 3
(2) 丁仲煥, 1970 〈임진왜란과 釜山事蹟〉 《향토문화》 3
(3) 李源鈞, 1974 〈조선후기의 부산〉 《부산시지》 (상)

7. 近 代

〈논 문〉

- (1) 姜東鎮, 1970 〈1921년 9월의 부산부두노동자들의 총파업에 관한 일고찰〉 《향토문화》 3
(2) 조기준, 1970 〈박기종의 생애와 기업활동〉 《향토문화》 3
(3) 일본문제연구소, 1972 〈부산지방의 항일독립고〉 《한일연구》1
(4) 김석희 · 박용숙, 1976 〈개항초기(1876~1885) 일본인의 상업활동-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대 논문집》 15
(5) 김대상, 1976 〈현해탄 이은 뱃길 -해운-〉 《개항백년》
(6) 김대상, 1976 〈새 문물의 상륙 -사회변화-〉 《개항백년》
(7) 김석희, 1976 〈국제도시로의 변모 -군사-〉 《개항백년》
(8) 김용욱, 1976 〈개펄에서 국제항으로 -항만-〉 《개항백년》
(9) 김석희, 1976 〈일본 상인의 수탈 속에서 -상업-〉 《개항백년》
(10) 朴雄鎮, 1976 〈독점자본에 멎든 산업 -공업-〉 《개항백년》
(11) 金日坤, 1976 〈一方通行의 무역 -무역-〉 《개항백년》
(12) 朴九乘, 1976 〈어료권을 빼앗긴 어민의 몸부림 -수산업-〉 《개항백년》

- (13) 都映州, 1976 <草家가 倭洋室로 - 건축- > 《개항백년》
- (14) 金義煥, 1976 <主客이 뒤바뀐 도시 발전 - 도시형성- > 《개항백년》
- (15) _____, 1976 <새로운 宗教의 물결 - 기독교의 전래- > 《개항백년》
- (16) _____, 1976 <꺼지지 않는 抗日의 불길 - 민족의 저항- > 《개항백년》
- (17) 金大商, 1976 <빼앗긴 땅 - 일인의 토지 수탈- > 《개항백년》
- (18) _____, 1976 <생존을 위한 투쟁 - 노동운동- > 《개항백년》
- (19) 李元浩, 1976 <草家에서 시작된 신교육 - 교육- > 《개항백년》
- (20) 박지홍, 1976 <부산문화의 모체 - 민족·민주사상- > 《개항백년》
- (21) 정상박, 1976 <외래의 충격과 반동 - 생활문화- > 《개항백년》
- (22) _____, 1976 <內的 傳承과 外的 受容 - 민간신앙·풍속- > 《개항백년》
- (23) 김의환, 1976 <포문으로 열린 門戶 > 《개항백년》
- (24) _____, 1976 <외교·국방의 前哨 - 역사적 배경- > 《개항백년》

〈단행본〉

- (1) 김의환, 1973 《부산근대도시형성사연구》
- (2) 3·1 동지회, 1979 《부산·경남 3·1 운동사》

이상에서 열거한 이 시기 부산사연구 현황을 시대별·주제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1970년대의 연구현황 분석

주제별 시대별	1	2	3	4	5	6	7	8	9	計
總 類	2 (4)							2 (2)		4 (6)
先 史	1					1	3 (6)			5 (6)
古 代	2									2
高 麗	1									1
朝鮮前期	1									1
朝鮮後期	1	1				1				3
近 代	3 (1)	1	5 (1)	9	3	2	(6)	(2)	1	24 (14)
計	11 (5)	2	5 (1)	9	3	4	3 (6)	2 (2)	1	40 (14)

※ ()안은 단행본 숫자임.

위의 연구현황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의 부산사연구는 1960년대에 비하면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자도 전문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국내 다른 지역의 향토사 연구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은 앞 시기와 같이 주로 근대에 집중되고(논문 24/40, 단행본 2/14)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1960년대의 연구현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산의 역사적 전개가 가지는 특성이며 古代나 고려시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이 시기에 근대에 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이 시기가 부산이 근대개항 100년이 되는 시기로 부산시, 부산일보사 등에서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사연구 전반적 침체와 함께 부산사 연구도 어느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있었으나 꾸준한 연구성과를 보인 분야는 부산의 先史文化에 대한 발굴조사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어 이 분야 연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었다.

3. 1980~1992년의 研究現況

1980年代 접어들면서 한국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즉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의 실질적 주역인 노동자층과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서 위축되었던 정치적·사회적 계층들이 폭발적으로 표출되면서 대규모의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대한 무력적 억압도 미봉적 수단에 불과할 뿐, 더 이상 민주화의 요구를 꺾지 못하였고 이전까지 움츠려 있던 노동자 및 농민층 등 사회의 기층을 형성하던 계층들이 사회변혁의 전면에 부각되었다. 또 이러한 사회변혁의 분위기는 ‘우리’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져 외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급속히 전개되었다. 따라서 한국사학계에서도 한국사회 구성체에 대한 논의와 변혁의 전면에 부각된 계층에 대한 역사상의 자리매김 및 개념 논의가 전개되면서 통일을 과제로 한 남북분단기의 역사 인식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정립이 커다란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는 중앙집권적 통치하에서 진행된 국가사 중심의 연구분위기를 쇠퇴시키고 한국사에서 지방사회의 역할과 위치를 재조명하는, 이전의 향토사 연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지방사 연구에 전문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부산사연구에도 이어져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연구분위기가 고조되었다.

〈1980年代의 研究現況〉

1. 총 류

〈논 문〉

- (1) 李相祿, 1980 〈釜山浦鎭城址의 研究〉 《한사실업전문대학 논문집》 5
- (2) 張용권, 1990 〈부산·경남지방의 민속예술 기능과 그 특성〉 《비교민속학》 6
- (3) 金승찬, 1991 〈가덕도의 기층 文化(I)〉 《인문논총》 38
- (4) 홍연진, 1991 〈부산의 지방사 연구현황〉 《항도부산》 8
- (5) 張관진, 1991 〈동래지방의 민요〉 《한국문화연구》 4
- (6) 鄭용범, 1991 〈녹산의 연혁〉 《한국문화연구》 4
- (7) 鄭정원 외 4, 1991 〈녹산의 고고학 분야 조사〉 《한국문화연구》 4
- (8) 蔡상식 외 6, 1991 〈녹산관련 문헌조사〉 《한국문화연구》 4
- (9) 金승찬 외 2, 1991 〈녹산의 기층문화〉 《한국문화연구》 4
- (10) 金승찬, 1992 〈부산수영지방의 당산제와 세시풍속〉 《국어국문학》 29

〈단행본〉

- (1) 부산시, 1983 《부산의 문화재》
- (2) 뿌리 깊은 나무사, 1983 《한국의 재발견 - 부산-》
- (3) 부산시, 1989 《부산의 내력》
- (4)~(7)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1991 《부산시사》 제 1권~제 4권

- (8)~(9) 최해군, 1990 《부산의 맥》 상·하
 (10) 김은경, 1991 《부산·경남 향토무용론》
 (11)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2 《부산문화》
 (12)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녹산문화유적학술조사보고》

2. 先史時代

〈논 문〉

- (1) 신경철, 1980 〈부산시 북천동 고분군 유적 1차 발굴조사개요와 의의〉 《연보》 3
 (2) 정정원, 1982 〈남해안 지방의 즐문토기 연구(Ⅰ) - 부산·경남지방 만기즐문토기의 검토-〉 《부대사학》 6
 (3) 신경철, 1982 〈부산·경남출토 와질계 토기〉 《한국고고학보》 12
 (4) 김동호, 1984 〈영선동 패총의 재검토〉 《부산사학》 8
 (5) 정정원, 1984 〈부산 괴정동 고분군 발굴조사개요〉 《연보》 6
 (6) 윤병용, 1984 〈노포동 고분군 1차 발굴개요(Ⅰ)〉 《연보》 7
 (7) 신경철·송계현, 1985 〈동래 북천동 4호분과 부장유물〉 《가야통신》 11, 12
 (8) 윤병용, 1985 〈노포동 고분군 2차 발굴개요〉 《연보》 8
 (9) 송계현·박지명, 1986 〈남산동 유적 긴급 발굴조사보고〉 《연보》 9
 (10) 신경철, 1987 〈동래 연산동 8호분 발굴조사개보〉 《연보》 10
 (11) 김병호, 1987 〈금정구 두구동 임석유적 가마(窯) 이전〉 《연보》 10
 (12) 정정원·안재호, 1987 〈북천동 38호분과 그 부장유물〉 《삼불 김원룡교수정년기념논총》 I

- (13) 정정원·심봉근, 1989 <선사시대의 부산> 《부산시사》 1
- (14) 신경철, 1989 <부산·경남 출토 와질계 토기> 《가야문화》 1
- (15) 안춘배, 1989 <동래 연산동 4호분 발굴조사보고> 《부산여대사학》 7
- (16) 송계현, 1989 <부산 생곡동 가달 고분군> 《연보》 12
- (17) _____, 1989 <동래 복천동 52~54호분 발굴조사개요> 《연보》 12
- (18) 하인수, 1989 <동래 복천동 내성유적 발굴조사개요> 《연보》 12
- (19) _____, 1990 <부산 다대동·용호동 출토 토기류> 《연보》 13
- (20) 송계현, 1990 <동래 복천동 고분군 출토 토기류> 《연보》 13
- (21) 부산시립박물관, 1991 <범방동 패총 발굴조사> 《연보》 14
- (22) 정정원, 1991 <동래 복천동 고분군의 조사 내용과 의의> 《한국문화연구》 4
- (23) _____, 1991 <선사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 4
- (24) 신경철, 1991 <원삼국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 4
- (25) 정정원, 1992 <신선기시대의 부산> 《부산의 역사와 자연》
- (26) 신경철, 1992 <청동기시대의 부산> 《부산의 역사와 자연》
- (27) _____, 1992 <원삼국시대의 부산> 《부산의 역사와 자연》

<단행본>

- (1) 부산대 박물관, 1980 《부곡동 율리 패총》
- (2) 부산시립박물관, 1983 《부산 덕천동 고분군》
- (3) 부산대 박물관, 1984 《부산 당감동 고분 발굴조사보고》
- (4) 부산시립박물관, 1985 《부산 노포동 고분》

- (5) _____, 1988 《부산노포동 고분(II)》
- (6) 부산대 박물관, 1989 《동래 복천동 고분군 2차 발굴조사》
- (7) _____, 1990 《동래 복천동 고분군 발굴 조사 보고서(II)》
- (8) _____, 1990 《동래 복천동 고분군 발굴 조사 보고서(II)
-도판, 도면》
- (9) 부산시립박물관, 1990 《부산 두구동 임석유적》
- (10) _____, 1990 《동래 복천동 내성유적》

3. 古 代

〈논 문〉

- (1) 정중환 · 신경철, 1989 〈삼한 · 삼국 · 통일신라 시대의 부산〉
《부산시사》 1
- (2) 신경철 · 박경원, 1991 〈삼국 · 통일신라 시대의 문화재〉 《부
산시사》 4
- (3) 신경철, 1992 〈삼국시대의 부산〉 《부산의 역사와 자연》
- (4) 정용숙, 1992 〈통일신라시대의 부산〉 《부산의 역사와 자연》

4. 高 麗

〈논 문〉

- (1) 박경원, 1980 〈만덕사지 3층 석탑〉 《연보》 3
- (2) 정용숙 · 채상식, 1989 〈고려시대의 부산〉 《부산시사》 1
- (3) 송계현 · 최정혜, 1990 〈만덕사지 발굴 조사 개요〉 《연보》 3
- (4) 정정원 · 박경원, 1991 〈고려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 4

5. 朝鮮前期

〈논 문〉

- (1) 김석희 · 지두환, 1989 〈조선전기의 부산〉 《부산시사》 1
- (2) 박경원 · 정정원 · 박용숙 · 김석희, 1991 〈조선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 4

6. 朝鮮後期

〈논 문〉

- (1) 정중환, 1981 〈임진왜란시의 부산지구전투〉 《군사》 2
- (2) 이원균, 1985 〈조선후기 지방무관직의 교체실태 - '경상좌수
영선생안' 과 '다대포선생안' 의 분석-〉 《부대사학》 9
- (3) _____, 1989 〈조선후기의 부산〉 《부산시사》 1
- (4) 윤용출, 1989 〈18세기초 동래부의 축성역과 부역노동〉 《한국
문화연구》 2
- (5) 김의환, 1989 〈부산 단일 왜관 성립의 연구 - 17· 18세기의
대일관계 究明을 위하여-〉 《부산고승제박사교회기
념논총》
- (6) 이미야, 1990 〈18세기 조선후기 진경산수 - 부산지방을 중심
으로-〉 《연보기》 13
- (7) 이원균, 1992 〈조선후기의 부산왜관에 대하여〉 《부산수산대
인문사회과학논문집》 48
- (8) 김석희, 1992 〈임진왜란과 부산항전〉 《항도부산》 9
- (9) 하우봉, 1992 〈임진왜란 이후의 부산과 일본관계〉 《항도부산》
9
- (10) 최해균, 1992 〈임진왜란 관련 선열과 유적〉 《항도부산》 9

7. 近 代

〈논 문〉

- (1) 李吉宇, 1985 〈일제하의 부두노동쟁의〉 《변태섭박사회갑기념사학논총》
- (2) 孫植睦, 1986 〈일제하 경남도청 이전의 과정과 결과〉 《이원순교수회갑기념사학논총》
- (3) 박용숙·김동철, 1989 〈개항기의 부산〉 《부산시사》 1
- (4) 김용옥, 1989 〈일제침략하의 부산〉 《부산시사》 1
- (5) 김의환, 1990 〈일제하 부산의 학생 항일독립운동〉 《윤병섭교수회갑기념한국근대사논총》
- (6) 채상식, 1991 〈한말·일제시기 범어사의 사회운동〉 《한국문화연구》 4
- (7) 김석희, 1991 〈한말 동래부 사립 동명학교의 설립과 운영〉 《한국문화연구》 4
- (8) 박성수, 1992 〈일제하 학생독립운동의 원류〉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
- (9) 강창식, 1992 〈일제하 항일학생의거의 성격과 그 한계〉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
- (10) 이송희, 1992 〈일제하 애국교육운동과 애국학생 운동의 위상〉 《부산학생항일 의거의 재조명》
- (11) 김석희, 1992 〈일제 말기 부산의 항일학생운동 -노다이 사건-〉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
- (12) 김대상, 1992 〈부산학생항일의거 평가를 위한 몇가지 문제〉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
- (13) 문인갑, 1992 〈노다이 사건의 진실과 역사기록〉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

- (14) 신종대, 1992 <부산·경남지방 인민위원회의 결성과 와해 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8-1

<단행본>

- (1) 김대상, 1981 《부산·경남언론사연구》
 (2) 金三根, 1982 《부산출신독립투사집》
 (3) 부산학생 항일의거 기념논집 편찬위원회, 1992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

위에서 정리한 이시기의 연구현황을 시대별·주제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1980~1992년의 연구현황 분석

시대별 \ 주제별	1	2	3	4	5	6	7	8	9	計
總 類	2 (10)					6 (2)	2			10 (13)
先 史	6						21 (11)			27 (10)
古 代	3						1			4
高 麗	1					1	2			4
朝鮮前期	1						1			2
朝鮮後期	1	6	1				2			10
近 代	5	1	7 (1)			(1)			(1)	13 (3)
計	19	7	8 (1)			7 (3)	29 (10)		(1)	70 (26)

※ ()안은 단행본 수임.

이 시기 부산사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학박물관과 부설연구소 등에서 부산사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부산은 전국 타지역과는 달리 지방사연구가 전문학자가 주축을 형성하면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간의 전문연구자의 증가와 연구분야의 다양화가 병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지역에서 前近代의 부산관계자료가 발굴되고 있어 부산사연구의 앞날을 밝게하고 있다.

III. 研究의 흐름

앞장(II)에서 부산사연구를 전반적으로 개관하여 정리하였다.⁶⁾ 여기서는 이들의 연구경향을 시대별·주제별로 나누어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時代別 研究 現況(1960~1992)

시대별 시기별	總類	先史	古代	高麗	朝鮮 前期	朝鮮 後期	近代	計	백분율 (%)
1960 ~1969	1 (7)	3	1			6	13 (5)	24 (12)	17.91 (23.08)
1970 ~1979	4 (6)	5 (6)	2	1	1	3	24 (2)	40 (14)	29.85 (26.92)
1980 ~1992	10 (13)	27 (10)	4	4	2	10	13 (3)	70 (26)	52.24 (50.00)
計	15 (26)	35 (16)	7	5	3	19	50 (10)	134 (52)	
백분율 (%)	11.19 (50)	26.12 (30.77)	5.22	3.73	2.24	14.18	37.31 (19.23)		

※ ()은 단행본 수입.

6) 이상의 부산사연구 현황에서 부산관계자료 발간현황은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홍연진〈앞의 논문〉 pp.315~323 참조.

위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사연구는 전체적으로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그 연구대상도 全時代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꾸준한 연구의 증가를 보인 분야는 고고학과 근대 부산사 분야이다. 또 조선후기에 관한 연구도 점점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들 분야는 한국사 전체의 연구에서 부산지역의 연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도 일맥하여, 부산의 전문학자에 의한 부산사연구가 적극성을 띠어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산사 연구자료가 고대~조선전기까지는 거의 발굴되지 못하고 先史時代에 관한 발굴과 조선후기 이후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굴되고 있음과 이 시기 연구자들의 부산사에 대한 깊은 관심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조선후기 부산관계자료는 이 분야의 연구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 확실하다. 아울러 아직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조선후기 부산관계자료의 발굴에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부산사연구의 흐름에서 1970년대 근대부산에 관한 연구성고가 양적으로 급증한 것은 앞에서 밝혔듯이 이 시기가 근대개항 100년이 되는 시기로 이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진행된 데 그 한 요인이 있다. 따라서 부산사연구는 전문학자나 향토사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 각급 기관과 자원을 함께 활용할 때 좀더 심층적이고 폭 넓은 연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기존의 부산사연구를 주제별⁷⁾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7) 주제별 분류기준은 주 4)와 같음.

〈표 5〉 주제별 연구현황(1960~1992)

주제별 시기별	1	2	3	4	5	6	7	8	9	계	백분율 (%)
1960 ~1969	5 (3)	6	1 (2)	5 (2)	2 (1)	2 (1)	3 (1)		(2)	24 (12)	17.91 (23.08)
1970 ~1979	11 (5)	2	5 (1)	9	3	4	3 (6)	2 (2)	1	40 (14)	29.85 (26.92)
1980 ~1992	19 (11)	7	8 (1)			7 (3)	29 (10)		(1)	70 (26)	52.23 (50.00)
계	35 (19)	15	14 (4)	14 (2)	5 (1)	13 (4)	35 (17)	2 (2)	1 (2)	134 (3)	(52)
백분율 (%)	26.12 (36.54)	11.19	10.45 (7.69)	10.45 (3.85)	3.73 (1.92)	9.71 (7.69)	26.12 (32.69)	1.49 (3.85)	0.76 (5.77)		

※ ()안은 단행본 수입.

위의 〈표 5〉는 주제별로 부산사연구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대체적으로 연구의 양적 증가가 1980년대에 와서는 비약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지방사 연구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사연구의 전반적 분위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들 연구 가운데서 고고학 분야의 비약적인 양적 증가는 최근 도시 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부산의 선사유적 파괴·소멸을 최소화하여 先史文化 究明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는 이 분야 연구자들의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타 분야의 연구성과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부산의 경제사나 산업사에 대한 연구가 침체되어 있음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이전의 연구가 주로 일제 강점기에 집중되고 대체로 개설적 내용에 그쳐 심층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상기할 때 새로운 연구분위기 진작을 통한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위에서 부산사연구의 양적 증가에는 부산지역 대학의 연구소와 박물관

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좀더 확대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양적으로 급증한 연구자들을 연구의 장으로 끌어들이어 부산사연구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IV. 맺음 말

이상에서 부산사연구의 현황을 그 흐름과 함께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부산사연구는 초창기인 1960년대 일부의 향토사가와 전문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다가, 1970년대 접어들면서 전문연구자들과 일부 부산지역기관에 의한 연구분위기로 바뀌고 차츰 향토사가들의 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던 향토사 연구 분위기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산의 지방사학회인 부산사학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고 각각의 대학에서 고립·분산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 대학박물관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연구자들에 의한 종합적인 부산사의 연구가 모습⁸⁾을 보이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산사연구 분위기의 고조는 최근 발굴되고 있는 부산관계 고문서 등에서 적극적인 조사와 발굴을 고무시키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전문연구자와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한 부산·경남 역사연구소(가칭) 발족이 가시화되고 있음은 지방사연구를 위한 또 한 걸음의 성숙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발전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학

8)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의 설립(1987) 이후 연구활동이 대표적임. 《한국문화연구》 1~6집(1988~1993) 참고.

자들이 향유하고 있던 폐쇄성을 일신하고, 부산관계 자료발굴에 대한 적극성과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발시키는 부산사 연구의 장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부산사연구 현황과 흐름을 개관하였다. 혹시 여기에서 누락된 것들이 있다면 이는 필자의 우매함에서 비롯된 것이니 많은 양해를 바라며, 이 글이 앞으로의 부산사연구에 기초적 역할을 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